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울고 짜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 하는 힘을 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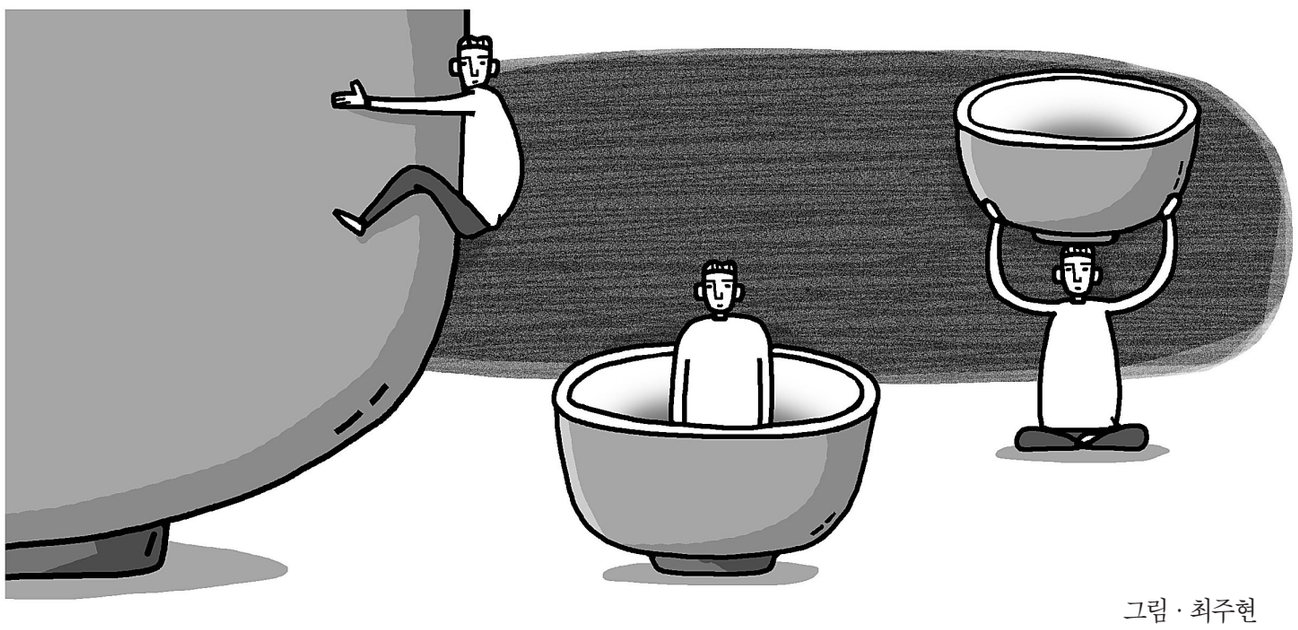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정한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질문 요즘 저는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둘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에는 뭔가 걸리고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해 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공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또 '둘이 아니잖아.'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만에 그 유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고, 아까 한 시간 전이 과거니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먹는다 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라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본에서만이 자기의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저건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시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신다면, 해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으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원인도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식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도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사찰마다 스님네들이 노비를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얻으러 오니까 싫죠. 얻으러 오니까 싫은데 그게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자에 빚을 졌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갚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인의롭게, 섭섭지 않게 잘한다면 그건 모두 보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살 케이스에 들질 못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놔 버려라.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게 되죠. 하다 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둘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 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다 잘 아는데 사람들은 요기서 요 한 발짝 사이도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맞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는 새도 있고, 미리 탈출하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알고도 힘에 겨워서 죽는데, 사람은 피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게끔 다 해 놨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찢고 찢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온 것이 얼맙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나는 지금 뭐가 급하냐. 이 주머니 속에서 내내 수없는 나날을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탕탕 털고,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의 연속일까요?

질문 사람답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삶이면 그래도 견뎌 내겠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까지 저희의 가난과 시련을 그대로 물려주게 될 것만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의 연속일까요? 차라리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생존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루한 생각까지 듭니다.

답변 우리 인간만 이렇게 생존경쟁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 고(苦)를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 사제법(四諦法)에 첫마디에 고가 있죠? 고·집·멸·도 이렇게요. 그런데 고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냥 사제법이 몰락 타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라는 거는 없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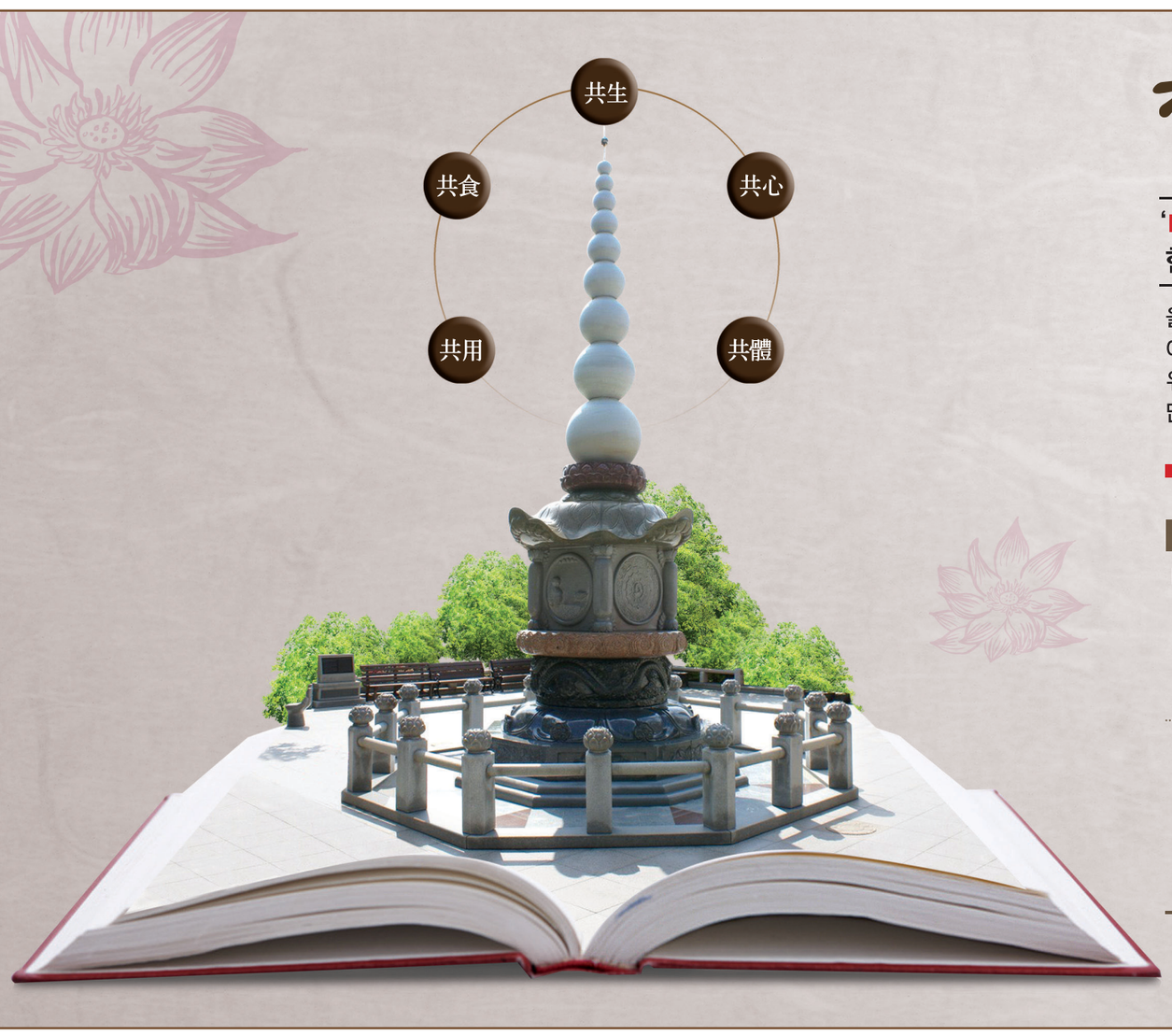
여러분이 인간 되기 어려운 것도 막론하고 인간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고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인간으로 나왔지만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타파하려고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그 습덩어리를 그냥 몰락 놔 버리라 합니다. 놔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父)는 자기 자(子)를 망치로다 모가 난 거를 자꾸 두드리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손 없는 손으로 다듬어 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게 고라고요? 그게 고라고 생각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간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법을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 가면서 계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고라고 생각합니까?

밥을 한 끼니 두 끼니 좀 굶으면 어때요, 글쎄. 아니, 새털 같은 날에 쉬지 않고 만날 먹어야 합니까? 쉬지 않고 입고 쉬지 않고 살고 있는데, 무슨, 헐벗으니까, 가난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내 자식 네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할 것 없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는 쩔쩔쩔쩔매는 거예요. 언제 적의 자식이고 언제 적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한나절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한나절 깨어나면은 그뿐인 것을. 아침에 잎이 피었다가 저녁나절에 잎이 지면 낙엽이 져서 땅에 떨어진 걸 여러분이 모두 밟고 다니면서도….

그런데 허무하다고 합니까? 허무한 게 아니라 바로 가랑잎이 지고 다시 꽃이 피었다 지면은 열매가 맺게 되죠.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그냥 사르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나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무학 대사가 꿈 해몽을 해 주는데 얼마나 잘해 줬습니까? "야!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죠. 동서남북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서 서로 당기고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되고 걸어 다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과학적 아닌 게 어딨습니까? 하나하나 묘한 도리가, 마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벽을 탁 치면 봇장이 울리게 돼 있어요. 돈 좀 꾸러 갔더니 요리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요거 벌써 알아요. 하하하. 그거 아는 놈이 바로 자성의 원력(願力)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써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탐지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인 탐지기, 망원경, 천체 무전통신기가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제2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행 큰스님이 탄생하신지 91주년이며, 열반하신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연구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10. 26(금)** (09:30~17:30) ■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1부 오전 학술발표

[사회: 임승택교수(경북대)]

10:50 ~ 11:30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 – 묵조선과 관련하여 –
- 논평: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1:30 ~ 12:10
- 발표: 김준호교수(울산대)
- 논제: 초기불교의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2부 오후 학술발표

[사회: 혜원스님(동국대)]

13:00 ~ 13:40
- 발표: 법상스님(중앙승가대)
- 논제: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하여
- 논평: 안유숙교수(동국대)

13:40 ~ 14:20
- 발표: 고승학교수(금강대)
- 논제: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 –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사회: 이덕진교수(전 창원문성대)]

14:40 ~ 15:20
- 발표: 박소령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 논평: 정영식교수(고려대장경 연구소)

15:20 ~ 16:00
- 발표: 청강스님(동국대)
- 논제: 大行의 증명관 一考
- 논평: 박재현교수(동명대)

16:20 ~ 17:30
- 토론광장 / 마무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 A17면에서 계속

본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 원력이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말합니다. 난 항상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글쎄, 다른 건 다 잘 알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한데, 꼭 고거는 그냥 자기가 번연히 알면서도 속는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속는 거 보면 이상해요. 너무도 잘생기고 이 세상 현시점에서 둘째가라면 섧다고 하는 분들이 꼭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거 때문에 그냥 막히고 막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히지 마세요. 이 성계가 꿈꾼 거를 무학 대사가 딱 뒤집어서 말해 줬듯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모가지가 문전에 대룽대룽 매달려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허허! 만백성들이 쳐다보고 우러러볼 꿈이로구나." 요렇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좋으니깐 그냥 생각대로 걸림이 없이 막 간 거예요. 좀 고통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 고통도 없이 인군을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팔자에 없는 인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점이란 말입니다. 무학 대사의 마음과 활랑 뒤집어 주는 걸 받은 그 근기, 그것이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가난하다 안 된다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생각을 잘 하는 힘을 내라 이겁니다.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예요. 해결사란 놈이 고놈이니까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는다.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는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솥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솥에 있을 거니까. 허허허. 안 그렇습니까? 팥죽이 아무리 끓어도 그 솥에 있는 거지 팥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헌쇠를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빕니까? 그리고 이름에다 왜 빕니까? 아니, 골 비었습니까, 빌게? 내 이거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요, 주제넘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자기한테 두고도 왜 딴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겔겔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낳을 때 낳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 건데 왜요?

정신병이나 암에 걸리는 사연

질문 큰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쫓고 쫓김을 당하고, 서로 인과(因果)의 업(業)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정신병이나 암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거기에 무슨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연이 새록새록 많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둘 아니게 하려면 둘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요즘 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죠, 모두가.

>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집게로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 동네에서 다시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다가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가,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온다 이런 뜻과 같죠. 그러니까 그런 업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으로 쓰는 거지 본래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삽으로 척척 쳐서 죽여 버리고, 생명들을 우습게 그냥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도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근본을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본은 모르면서 이 영혼만이 누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냥 그리로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 년이 지나서든지 이태가 지나서든지 또는 그 후생이 되든지 그렇게 돼서 그 인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보시를 하라 하는 거죠, 항상.

관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질문 대행 스님께서는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만 나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병만 나으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요런 데로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니까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러니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눈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똥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부처님을 여기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놨지만 때로는 금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이 모두를 알 양으로 애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년서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놔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랍니다. 그런데 고기들을 잡느라고 얼음을 깨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스님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었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 몸에 환상이 생겨서 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관해서 놓으면 그 환상이 둘이 아니게끔 딱…. 왜, 그런 것도 있죠. 이 한 모습에 다른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거 보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수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거든요.

제 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우주의 근본은 내 한마음이 근본이다 대행선사 법어

논문발표
- On the Compatibility of Hanmaum Studies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Movement: A Special Reference to Seon Master Daehaeng and William James | 김재영 교수 (서강대)
- 한마음선원 해외 포교 현황 | 혜유스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 독일 중세 문학 텍스트를 통한 대행큰스님 번역 의미 | 랄프 패슬러 교수 (독일 마부르크대)
-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 안영우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 | 김영래 교수 (고려대)
-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生修禪) 정립 방안 연구 – 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 이상호 박사 (대행선연구원)

스터디 그룹 연구 발표
- 공학팀, 교육학팀, 오공팀, 의학팀, 식물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후원.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2018. 10. 27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한마음선원 3층 강당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